

북구 광융합무역촉진단 1천251만달러 수출계약 '쾌거'

인도네시아·베트남서 6박7일 일정
187억원 상당...MOU 5건 체결도
문인 청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광주 북구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파견한 광융합무역촉진단이 총 1천251만달러(약 187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0-16일 운영된 광융합무역촉진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수출 상담회와 현지 바이어 미팅 등을 진행했다.

이번 촉진단은 광융합 분야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자카르타에서는 이틀간 수출 상담회를 열고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 활동을 펼쳤다.

또 GICC(녹색혁신협력센터), 인도네시아 농



광주 북구가 지난 10-16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파견한 광융합무역촉진단이 수출 상담회와 현지 바이어 미팅 등을 통해 총 1천251만달러(약 187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북구 제공>

촌낙후지역개발부, 협동조합부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현지 협력 기반 확대에도 나

섰다. 특히 현진기업과 NH네트웍스는 보유한 기술

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생활 인프라 및 수질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현지 진출 가능성을 타

진하기도 했다. 촉진단은 호치민에서도 수출 상담회와 바이어 미팅을 이어갔다. 또 호치민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베트남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북구는 총 1천251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과 5건의 기업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성과가 지난 3월 참여기업 모집 이후 수입 경험, 구매 의사, 현지 유통망 등이 있는 기업 맞춤형 바이어 발굴에 집중된 결과로 보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미래 신산업 대응이 중요하다"며 "광융합과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협력과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2023년부터 매년 광융합무역촉진단을 해외시장에 파견해 현재까지 누적 4천 935만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윤창용 기자

서구, 호남 유일 '유니세프 공모사업' 선정

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 주관
1천만원 확보...아동작가 100명 발굴

광주 서구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주관 공모사업을 따내면서 아동작가 100명을 발굴·지원한다.

18일 서구에 따르면 협의회에 가입한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아동친화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서구는 확보한 사업비 1천만원을 활용해 '작한도시 서구, 아동작가 슈퍼100'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아동들이 그림일기와 시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창작 프로젝트로 아동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주제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100명의 아동작가를 선정해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내가 바라는 착한도시 ▲내가 사랑하는 아동친화도시 ▲서구만의 천원시리즈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모아 작품집으로

제작·발간할 예정이다. 또 지역 캘리그래피 협회와 시니어클럽 재능 기부자들이 아동들의 원작 문구를 손글씨로 필사하며 세대 간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세대공감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민정 서구 양성아동복지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아이들의 창의적인 목소리가 담긴 활동이 전국적인 아동친화도시 모범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남구 '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처 공모전 대상

'내 냉장고를 부탁해' 숏츠 영상

광주 남구는 "최근 서울 중구 더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내 냉장고를 부탁해' 숏츠 영상으로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쉽고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활 속

식품 안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팀을 대상으로 영상 작품을 모집했다.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작한 1분가량의 영상은 냉장고 속 식품 보관 방법의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센터 직원들의 노력과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함께 만들어 낸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올바른 식품 안전 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후우 기자

공선옥 작가, 동구 화요인문대학 제4강 강연

'사건 이후 그리고 묻는 방식' 주제
5·18 46주년 맞아 옛전남도청서

광주 동구는 18일 "19일 옛 전남도청 별관 3층 세미나실에서 '2026 동구 화요 인문대학' 제4강 강연을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마련했다.

옛전남도청북원추진단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강연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마련했다.

행사는 오후 4시 옛 전남도청 전시해설프로그램을 통해 복원된 공간을 함께 걷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후 5시30분부터는 소설 '피어라 수선화',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살' 등으로 알려진 공선옥(사진) 작가가 초청 강연을 한다.

공작가는 '사건 이후 그리고 묻는 방식'을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와 기억, 질문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성찰할 예정이다.



오후 6시30분부터는 김영순 동구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공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쇼가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기억과 질문이 갖는 의미를 나누며 강연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옛전남도청북원추진단과 함께 이번 인문대학 강연을 공동 주관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잔잔한 감동과 긴 여운이 남을 이번 특별 강연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 동구 화요 인문대학' 참여를 희망자는 광주 동구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두드림', 또는 전화(062-608-2142)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강좌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안재영 기자

광산구 "여름철 자연재난 24시간 대응"

광주 광산구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다가오는 여름철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해 355일 빈틈없는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10월15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앞두고 24시간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 상황실은 전담 인력 3명이 3교대로 상시 투입돼 재난 신고 접수부터 초동 보고, 상황 전파, 유관기관 협력, 재난문자방송 송출 등 대응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광산구 관계자는 "24시간 쉼 없는 상황실 운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육근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